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순환매 진행되며 소외주 반등

코스닥, 6거래일 만에 상승
반도체 소부장, 금융, 백화점 업종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639.41pt (-1.84%)	1,049.73pt (+2.31%)	1,379.56pt (-1.9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30.10 원 (+11.1 원)	4.2060% (+7.1bp)	7,549.00pt (-0.3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50,158 억	-1,636 억	-1,222 억
외국인	-69,880 억	-302 억	+6,867 억
기관	+18,090 억	+2,068 억	-5,52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업종간 순환매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피지컬 시와 반도체 BIG2가 하락한 반면, 반도체 소부장과 금융, 백화점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던 코스닥지수는 6거래일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84% 내렸고, KOSDAQ은 2.31%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46.2조원, KOSDAQ은 약 11.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7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금융과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1.8조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유통과 운송/창고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업황에도 불구하고 주가 랠리에서 소외됐던 반도체 소부장 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익IPS와 유진테크 등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금융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내수소비 회복 전망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백화점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젠슨 향 방한 기대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피지컬 시와 S/W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주성엔지니어링(+27.22%), 신세계(+15.82%), 삼성화재(+13.88%)가 올랐고, LG전자(-16.43%), 로보티즈(-15.19%), 삼성전자(-2.50%)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